

1강. 반려종과 실뜨기하기

1. 선언의 사상가, 다나 해러웨이

다나 해러웨이는 선언의 사상가다. 그녀는 두 번의 유명한 선언, 『사이보그선언』과 『반려종 선언』을 발표했고, 지금 두 개의 선언을 더 준비 중이라고 한다.¹⁾ 대개 선언 형식의 글쓰기는 확고한 정치적 견해를 대중에게 밝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가령 「기미독립선언」은 조선은 독립 국가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라는 확고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해러웨이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라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확실히 밝혔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한번은 자신이 사이보그가 되겠다고 했고 또 한 번은 자신의 개와 반려친족이라는 선언을 했다.

『사이보그선언』은 1985년에 소셜리스트 리뷰에 발표된 논문이다. 당시의 정세는 레이건-대처 시대로 대표되는 신냉전체제가 격화된 시기였다.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 레이건은 일명 스타워즈라는 엄청난 규모의 파괴적인 무기개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그러한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이보그선언」의 문제의식이다. 해러웨이의 정치적인 슬로건은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이보그를(Cyborg for earthly survival)”이다. 이 선언은 발표 즉시 대단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테크노사이언스는 핵전쟁의 위협이라는 정세 속에서 마치 2차 대전 직후처럼 파괴의 대명사가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페미니즘 진영에서 테크노사이언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사이보그선언』은 테크노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이자, 자연과 문화(혹은 인공)을 나누는 이분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다.

“사이보그의 몸은 죄 없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아이러니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능력, 기술 능력에 의한 강력한 기쁨은 더 이상 죄가 아니며, 체현의 한 양상일 뿐이다. 기계는 생명을 붙여넣어야 할 그것이 아니며, 존경해야 할 그것이 아니고, 지배해야 할 그것도 아니다. 기계는 우리며, 우리의 활동이며, 우리의 체현의 한 양상이다. 우리는 기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계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다.”(Cyborg Manifesto)

해러웨이가 테크노사이언스를 긍정한다고 해서 그것의 파괴적인 힘을 외면하거나 망각한다든지, 혹은 테크노사이언스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기술결정론자가 아닐 뿐 아니라, 테크노사이언스가 야기할 미래가 오직 인간의 선용과 악용에만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이보그선언』에서 해러웨이는 남성의 자기출산 신화를 슬쩍 도용해서 전혀 다른 신화를 만들어 버렸다. 우주전사와 함께 태어나버린 사생아 사이보그. 린 랜돌프가 『사이보그 선언』을 읽고 그린 그림은, 코요테 가족을 뒤집어쓰고, 가슴에는 반도체 칩을 부착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유색인종 여성이다. 백인남성의 자기출산

1) Sarah Franklin, “Staying with the Manifesto: An Interview with Donna Haraway”, Theory, Culture & Society, 0(0) 1-15, (2017)

신화가 낳은 사이보그가 우주전사라면, 해러웨이가 희망을 걸고 있는 사이보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버린 유색인종 사이보그다. 이 사이보그는 80년대 미국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몰려든 제 3세계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고, 유색인종의 페미니즘에 대한 응답이었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제3세계 유색인종 여성은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이자, 파괴적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테크노사이언스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서 그들을 옹호하던 가부장체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이기도 하다. 린 랜돌프가 시각화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이런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해러웨이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이보그는 사생아에게 자신의 기원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기에 손쉬운 이원론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우주전쟁이 아닌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이다. 그는 페미니스트 사이보그다. 『사이보그 선언』에서 해러웨이의 기획은 페미니스트 사이보그-되기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을 갱신하고, 그것을 통해 우주개발경쟁과 냉전, 기술적 인간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적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2003년에 해러웨이는 『반려종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의 정세는 소련이 붕괴했고, 레이건의 스타워즈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기술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대중들의 요구에 직면해서 흐지부지 끝난 상황이었다. 한편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핵전쟁보다는 생명권력(biopower)이 보다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이보그에서 보통의 개로 관심을 옮겼다. 「반려종 선언」은 생명력(biopower)과 생명사회성(biosociality)에 관한 이야기이자 테크노사이언스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 대상은 푸코처럼 인간만이 아니라 개다. 그는 “감옥의 탄생”이 아니라 “개집의 탄생”을 이야기 한다. 개를 통한 이야기는 훨씬 더 신랄하다.

「반려종선언」의 첫 장은 해러웨이와 자신의 개, 카이엔의 깊은 입맞춤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입맞춤을 통해 카이엔의 입속에 있는 세균들이 해러웨이의 세포들을 감염시켰을 것이다. 알다시피, 생물학적인 종은 유성생식에 의한 수직적인 유전자 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카이엔과 깊은 입맞춤을 하면서 린 마굴리스의 심바이오제네시스를 떠올린다. 린마굴리스는 진화의 원동력은 유성생식이 아니라 세포내 공생에 의해서 추동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러웨이는 유전자의 수직이동에 선행하는 수평적 이동이라는 존재 양태를 반려종이라고 명명한다.

나는 우리들의 게놈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닳아 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우리들의 한쪽은 나이 때문에, 다른 한쪽은 불임수술에 의해서, 각기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는 침묵한 여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생명의 유전정보 속에 우리들의 접촉에 관한 어떤 분자적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적록색 털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는 지금까지 그 민첩하고 부드러운 혀를 사용해서 활발한 면역계수용체를 가진 나의 편도선조직을 훔쳐 왔다. 나의 화학수용체는 그녀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로 나른 것일까?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녀는 나의 세포 시스템에서 무엇을 수집한 것일까?

우리들은 금지된 대화를 나누어 왔다; 우리는 구강성교를 해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사실일 뿐인 이야기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반려종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의 몸속에 만들어 낸다. 구체적인 차이에 있어서 서로에게 현저하게 타자인 우리들은 서로의 몸속에 사랑이라 불리는 짓궂은 발달성의 감염을 나타낸다. 이 사랑은 역사적인 일탈이고, 자연문화적인 유산이다. (Companion Species Manifesto)

감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과학에서 말하는 명령의 일방적인 하달과 수령의 피드백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성을 전제하지만 정보과학이 말하는 그것은 겨우 명령의 하달과 수령의 피드백이다. 그렇기에 하달과 수령의 루프가 수백 번 반복되어도 그것은 전혀 양방향성이 아니고 하달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해러웨이가 『사이보그선언』에서 말했던 남성의 자기출산 도식이다. 남성(인간)은 그 자신인 우주전사에게 명령하거나 되풀이해서 독백하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차이에서 현저하게(significant) 타자인 카이엔과 해러웨이에게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정보과학의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날 수 없다. 현저하게 타자인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공통의 프로토콜이 없기에 결말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현저하게 타자인 그들이 서로에게 중요한(significant)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해서 서로에게 혼란시킨다. 혼란은 일방적인 것일 수 없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는 한 번 만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결말이 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현저하게 타자인 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폭력이지만 그럼에도 그 폭력적인 감염을 긍정하고 견뎌내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시도 하는 것이 혼란이고, 그런 혼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질 들뢰즈라면 이것을 니체의 영원회귀라고 했을 것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이미 복수종들의 이런 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단한 혼란의 결과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출현과 역사를 같이 하는 개는 상호간의 부단한 혼란을 통해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인간중심주의는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개와 가축들에게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가혹한 생명권력을 작동시키고 있다. 해러웨이는 푸코가 말한 생명권력은 그저 인간만을 염두에 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인간중심주의를 반복하기 십상이라고 경계했다. 그래서 그녀는 “감옥의 탄생”대신에 “개집의 탄생”을 이야기 한다. 감옥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도 개집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위해 해러웨이가 선택한 슬로건은 개와 인간의 협동 스포츠에서 훈련 시에 사용하는 “빨리 뛰어, 짹 물어!” “닥치고 훈련!”이다.

반려종에는 개와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은 수많은 반려친족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 하나의 행성이다.

“내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세속적 공간을 구성하는 전체 세포의 약 10퍼센트에만 인간의 게놈이 있고, 나머지 세포의 90%가 세균, 균류, 원생생물등의 게놈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쁘다. 약 90%들에는 살아있는 그 자체와 협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나와 우리의 나머지 부분들에 탈리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탄탄하게 떠맡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반려들쪽이 나보다는 훨씬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잘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작은 식사동료들과 함께 한사람의 성인이 된다. 한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언제나 많은 것들과 함께 하는 과정이다. 이런 미시적 생물들 일부는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는 나에게 위험한 존재이지만 그들 이외의 모든 세포들과 인간세포들이 협조함으로써 어쨌든 위험이 방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의식이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이런 아름다운 공생자와 위험한 공생자들이 나를 넘겨받고, 가령 잠시나마 신체의 찌꺼기를 사용해 주는 것이 기쁘다.” (When species meet)

반려(companion)의 라틴어 어원은 콤 파니스 (cum panis)로 빵을 함께 나눈다는 말이다. ‘빵을 함께 나눈다’는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반려(companion)가 종(species)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진화생물학적 존재인 종(species)은 필멸의 존재자들이고, 이

들이 함께 먹어야 한다면 죽이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려종들에게는 살기와 살리기만큼 죽기와 죽이기가 중요한 문제다. 그것을 생명권력에게 내맡겨놓을 수는 없는 문제다.

2016년에 해러웨이는 『곤란함과 함께하기: 쓸루세에서 친척만들기(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Chthulucene)』와 『매니페스틀리 해러웨이(Manifestly Haraway)』를 펴냈다. 『매니페스틀리 해러웨이(Manifestly Haraway)』는 미네소타 출판의 포스트휴머니티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었고,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선언과 시리즈의 에디터인 캐리 울프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 강의에서는 『곤란함과 함께하기: 쓸루세에서 친척만들기(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Chthulucene)』를 다룰 것이다. 쓸루세(chthulucene)는 인류세와 자본세에 대항해서 해러웨이가 만든 말이다. 이 책에서 해러웨이가 내건 슬로건은 “곤란함과 함께하라(Stay with the trouble)”와 “아기를 낳지 말고 친족을 만들라(Make kin not baby)”다

2. 테라폴리스

자연은 추상적인 말이다. 과학자들에게 자연(nature)은 읽어야 할 비밀스런 텍스트이고, 자본주의자들에게 자연은 자원이자 소유이고, 에코페미니스트나 급진적인 생태주의자들에게 자연은 인간들에게 혹은 서구의 남성중심의 문명에게 무참하게 유린된 상처 입은 어머니다. 갈릴레오는 자연을 수학으로 쓴 성경이라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을 하는 것은 수풀속의 미로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고전시대의 재현이 그렇듯이 심히 투시법적인 시선이다. 과학자는 빛을 비추는 자의 대리인 혹은 빛을 비추는 자로 소실점에 위치하고, 자연은 단지 빛을 반사할 때에만 드러나는 사물, 계몽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자원이고 소유물이라는 자연스런 귀결에 이른다. 반면 에코 페미니스트나 급진적 생태주의자들은 이러한 투시법적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에게 자연은 이 모든 것을 낳는 어머니다. 낳다 혹은 낳아진 것이라는 어원을 가진 네이처가 동아시아에서 자연으로 번역된 것은 낳다는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다. 그런데 이런 초월적 의미의 자연 개념은 이들이 비판하는 투시법적 시선과 주인과 노예의 위치만 바꾼 거울상이다. 낳는 것으로서의 자연은 남근적인 어머니다.

해러웨이는 사실이나 허구처럼 자연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²⁾ 유기체만 해도 태어나는 것이 라면 그 기원에 신을 두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이 신이 아니라 섭리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연은 신비한 무엇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되어할 무엇도 아니다. 자연은 그 속에 존재하는 액터들의 구축물이다. 그러나 액터는 인간만이 아니다.

자연은 미리 존재할 수 없지만 그것의 현존도 이데올로기적이지 않다. 자연은 평범한 것(commonplace)이고, 인간이든 아니든 물질-기호론적 액터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초래된 중첩을 수 없는 강력한 구축이다. 그런 실체들을 목격하는 것은 그 액터들과 유리되어 있는 발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언제나 불평등한 구조화하기, 모험하기, 능력을 위임하기에 관한 것이다.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최초의 빅뱅으로부터 법칙적인 시간에 의해 지금의 지구가 된

2) Haraway Reader, “The promises of Monsters: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d Others”

3) Haraway Reader, “The promises of Monsters: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d Others”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는 그 속에 있는 인간만이 아닌 모든 액터들에 의해서 구축되어 온 것이다. 다나 해러웨이는 이를 “테라포밍(terraforming)”이라 부른다. 그녀는 이론적인 우화로서 테라포밍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

$$\int_{\alpha} \text{Terra}[x]_n = \iiint \dots \iint \text{Terra}(x_1, x_2, x_3, x_4, \dots, x_n, t) dx_1 dx_2 dx_3 dx_4 \dots dx_n dt = \text{Terrapolis}$$

$x_1 = \text{stuff/physics}$, $x_2 = \text{capacity}$, $x_3 = \text{sociality}$, $x_4 = \text{materiality}$, $x_n = \text{dimensions-yet-to-come}$
 α (alpha) = Ecological 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s multi-species epigenesis
 Ω (omega) = recuperating terra's pluriverse
 $t = \text{worlding time, not container time, entangled times of past/present/yet to come}$

이 땅은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 비인간의 모든 액터들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인 테라포밍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라폴리스이지 그 활동 이전에 이미 있었던 컨테이너가 아니다. 테라폴리스의 시민은 인간만이 아니고 비인간 복수종의 크리터들이 당연히 포함된다. 해러웨이가 우화화한 증적분방정식은 열려있다. 푸지스에서 부터 사회성, 물질성 등 온갖 것들이 하나씩 각각의 차원을 차지하고 심지어 아직 오지 않은 차원도 있다. 그래서 테라폴리스는 한 몸에 온갖 것들이 뒤엉킨 키메라다. 이런 차원들과 별도로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시계적인 시간은 아니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얽혀있는 시간이다. 이 테라폴리스의 거주민들은 반려종이지 근대의 발명품인 “휴먼(human)”이나 그것의 강화버전인 “포스트휴먼(posthuman)”이 아니다.

3. 실뜨기 혹은 SF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실뜨기는 해러웨이 사상의 중요한 개념이다. 해러웨이는 실뜨기(string figure)를 SF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이언스 픽션만이 아니다.

SF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과학 판타지(science fantasy), 사변적 우화화(speculative fabulation),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그리고 또 실뜨기(string figure)를 위한 기호다. 실뜨기 게임을 하는 것은 패턴을 주고받기이고, 실을 떨어뜨리고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연결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땅위에서 지구에서의 유한한 변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손에 손을 포개고, 손가락에 손가락을 걸고, 접합부위에 접합부위를 이어가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중요하고 아마도 아름답기까지 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실뜨기는 받고 전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기가 필요하다. 실뜨기는 주고받기의 리듬이 유지되는 한, 모든 종류의 수족으로, 다수에 의해 플레이 될 수 있다. 학문과 정치도 역시 그것을 닮았다 - 열정과 행동, 가만히 있기와 움직이기, 고정시키기와 시작하기를 요구하는 꼬임과 뒤엎힘 속에서 전달하기 (Staying with the trouble)

SF의 리스트는 길다. 허구적이거나 사변적인 이야기와 과학적 사실이 나란히 놓이고, 그 옆에는 사변적 페미니즘도 놓인다. 말들의 어원으로부터 통상의 용법과는 다른 의미의 개념창조에 적극적인 해러웨이는 사실(fact)과 허구(fiction)에 대해 두 단어 모두 행동을 가리키고 어원도 가깝지만 시제가 다르다고 한다.⁴⁾ 사실(fact)은 이미 일어난 일로 과거완료형이고 허구(fiction)은 아직 결말을 모르고 진행 중인 현재완료형이다. 허구는 대개 여태까지 일어난 사실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허구를 거짓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해러웨이는 허구는 우리가 여태까지의 진실이란 것을 몰랐지만 결국은 진실이라고 알게 될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허구는 거짓이 아니다.

사실과 이야기도 또한 함께 놓일 수 있다. 해러웨이는 이것을 신문사의 스포츠 기자였던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경기스토리에 대한 것만 썼다. 신문계에서는 경기스토리보다는 칼럼이 더 대접 받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경기스토리 쪽을 선호했다. 해러웨이 아버지가 썼던 이야기는 사실을 쓴 것이다. 해러웨이의 표현에 의하면 특정한 시점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메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에 착 달라붙어서” 쓴 이야기다. 사실들은 이야기로 전해진다. 이야기에는 문체가 더해지고, 그것은 사실들을 더 생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비단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브뤼노 라투르가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 사실은 실험실의 인간과 비인간 액터들의 협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들은 사변적인 우화를 필요로 하고, 사변적인 우화는 사실들을 요구한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사변적 우화다. 해러웨이가 이렇게 이론 대신 사변적인우화라고 하는 이유는 이론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투시법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 사변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인 정합성을 함축한다. 해러웨이는 사변과 우화를 합쳐서 투시법적 시선이 아니라 회절이라는 시각을 확보하려고 한다. 회절은 빛의 파동적인 성질로 간섭과 방해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회절하는 빛은 직선이 아니라 휘돌아간다. 그래서 투시법적 시선은 꿈도 못 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로 언제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 회절이라는 시각을 확보한 우화다.

『사이보그 선언』에서 해러웨이가 예기치 않는 사생아를 포착하고 창조신화가 아닌 다른 신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사변적 페미니즘을 가지고 복수종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어머니 자연이 아니라 테라폴리스를 이야기할 수 있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반려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머니즘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테라폴리스나 반려종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과 사변적인 우화는 둘 다 사변적인 페미니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가 탐구하는 것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행동하고 있고,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의 행위자들이 조금이라도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서로 설명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⁵⁾이기 때문이다.

실뜨기는 파트너가 있는 놀이이고,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주고받고, 문제가 있는 패턴을 전달 받고 그것을 들고 있어야 하는 놀이다. 패턴을 주고받을 때 마다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이 요구된다. 이것이 해러웨이가 말하는 곤란함과 함께하기의 핵심적인 의미다. 그래서 실뜨기는 “되기”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되기”의 문제다. “되기”는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천의 고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출구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휴면이 아니라 수많은 되기, 가령 동물-되기, 여성-되기, 어린이-되기, 심지어 지각불가능하게-되기의 존재라고 그들은

4) Companion Species

5) Donna Haraway, “Companion Species Manifesto”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되기”는 일상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일상을 벗어나게 하는 매혹적이고 악마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해러웨이가 보기에 이런 “~되기”로는 인간중심주의를 빠져나가는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해러웨이에게 출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은, 인간 아닌 타자들과 엮어온 부단한 함께-되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4. 반려종

반려종들은 가차 없이 함께-되기이다. 반려종이라는 카테고리는 내가 포스트휴머니즘을 들먹이지 않고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도록 돕는다. 반려종들은 실프기게임을 한다. 거기에서는 누가 세계 속에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내부작용과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 파트너들은 매듭짓기보다 선행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종들은 세상의 주체 만들기과 객체 만들기의 얽힘의 결과이다. 인간-동물 세계들에서, 반려종들은, 집, 실험실, 들판, 동물원, 트럭, 사무실, 목장, 운동장, 마을, 인간 병원, 숲, 도살장, 강어귀, 동물병원, 호수, 경기장, 마구간, 야생동물 보호지, 농장, 대양의 협곡, 도시의 거리, 공장, 등등에서의 일상적으로 조우하는 존재자들이다. (Staying with the trouble)

포스트 휴먼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깊이 침투한 테크노사이언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한다. 하지만 해러웨이는 포스트휴먼이라는 담론에 부정적이다. 그것은 80년대에 해러웨이가 맞서고자 했던 창조신화의 사이보그와 다르지도 않고, 그것이 제기하는 물음도 기껏 인간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 담론의 기획은 인간의 경계를 다시 묻는 것을 통해서 인간중심주의를 빠져나갈 출구를 발견하려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경계라는 것이 테크노사이언스=인간의 탁월성이라는 등식을 통해서라면, 그 출구는 가짜 출구일 것이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테크노사이언스는 인간만의 것도 아니고, 인간 혹은 유기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들과 그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의 활동은 이미 테크노사이언스이고 이들의 테크노사이언스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연이라 칭하는 것이 만들어 졌다.

『반려종선언』에서 해러웨이는 자신의 개에게 촉발 받아서 반려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에게 개는 애완동물이거나 가끔은 음식재료가 되기도 하는 가축이었다. 애완동물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추고 있고 자신의 전 인생을 그것과의 투쟁에 바친 철학자들에게는 경멸적인 것이었다. 그들에게 개는 저 심해의 백경처럼 치명적인 매력으로 덮쳐오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 일상에 매몰된 노예근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일상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일까? 남성의 자기출산 신화에서 사생아 사이보그를 발견했던 해러웨이로서는 심해의 백경과 개집의 개를 위계화하는 그런 논의에는 당연히 분노를 금치 못했다.⁶⁾ 그녀는 자신이 함께 사는 개를 경멸이나 연민의 대상 혹은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존재로서 철학의 무대에 불러냈다. 그 존재의 카테고리는 반려종이다. 반려종은 우리와 함께 일상을 만들고 살고 있으나 투시법적인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 장에서 우리를 인도할 반려종은 비둘기다.

그들은 소중히 여겨지는 친척이고 경멸되는 해충이고 구조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며 권리의 지참자이자 동물-기계의 구성요소의 지참자이며, 음식이고 이웃이며, 박멸의 표적이고, 생물공학적인 사육과 증식

6) When species meet

의 표적이며, 일과 놀이에서의 반력이고 병의 매개체이며, “근대적 진보”와 “시대에 뒤진 전통”이 서로 다투는 주체이자 대상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비둘기들의 종류들은 다양하고, 또 다양하고, 땅 위의 거의 모든 장소 마다 있는 종류들로,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하다. (Staying with the trouble)

비둘기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동물로 수천 년 전부터 사육되기 시작했다. 야생비둘기와 사육비둘기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다양성과 왕성한 번식력에 의해 그 경계는 분명치가 않다. 수천 년 전에 서남부 유럽과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출현해서 유럽의 식민자들과 함께 전 세계로 퍼졌다. 비둘기들은 “날개 달린 쥐”라 불리면서 박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널리 사육되고 소중하게 다뤄지는 반려들이기도 하다. 사육비둘기가 일을 하는 영역은 대단히 다양한데, 메시지를 전하는 스파이, 경주용 새, 새장에 들어가는 고급 비둘기, 음식, 심리학적 테스트 대상 등이다. 야생 비둘기는 주로 도시 땡금류의 먹이가 되거나 인간에게 박멸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주로 도시의 다리나 마천루 꼭대기 턱에서 삶을 시작한다.

해러웨이는 비둘기와 인간의 협동적인 행위들에 대한 SF를 쓴다. SF는 앞에서 말한 그 장황한 리스트이고 SF의 주된 테마는 곤란함과 함께하기다. 해러웨이는 비둘기와 인간들의 협동적인 몇몇 프로젝트들을 추적하는데, 그때 인간과 비둘기가 엮어내는 여러 가지 매듭들로부터 더 나은 응답-능력을 키우는 유망한 패턴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망한 패턴이라고 해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곤란함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부분적인 회복을 꾀하는 패턴들이다.

5. 비둘기와 인간의 SF적인 실천들

비둘기 사육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유럽으로 이민 온 무슬림들은 비둘기 레이싱에 열광한다고 한다. 이 비둘기레이싱은 특정한 곳에 비둘기를 놓아두고 가장 정확하고 빨리 집으로 찾아오게 하는 게임이다. 비둘기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데 능숙하다. 비둘기 레이싱에 빠진 무슬림 소년들과 남자들은 비둘기를 선별적으로 사육하고 아주 정교하게 키워서 비둘기의 레이싱 능력을 향상 시킨다. 비둘기 측에서는 이 무슬림 남자들이 훌륭한 사육기술을 얻도록 이끈다.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비둘기를 사육하고 훈련시키지만, 인간을 그런 활동으로 이끄는 것은 귀소본능을 가진 비둘기다. 무슬림 남자들이 비둘기를 사육하고 훈련시키며, 레이싱게임을 하는 이야기를 비둘기의 능동적인 활동을 지워버리고 비둘기 사육을 하는 남자들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기술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비둘기가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전망을 낳는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의 함께-되기라는 사변적인 우화는 과학적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해러웨이는 과학적 사실과 사변적 우화를 엮어서 매듭을 만든다.

미국 해안 경비대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비둘기와 함께 조난자구조훈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비둘기들은 거울 속의 자신의 이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세 살짜리 어린이보다 낮고, 심지어 모네 그림과 피카소 그림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런 탁월한 능력 덕분에 비둘기들은 조난당한 사람이나 장비를 93%정도의 정확도로 찾아냈다. 사람의 경우 정확도는 38%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둘기들은 헬리콥터 아래 붙어있는 관찰용 장비 속에 앉아 있다가 그가 발견 한 색깔을 판별하고 키를 쏘는데, 그 작업은 인간과 함께 협동할 때 거의 100% 정확했다. 이 협동에서도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 비둘기가 구조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비둘기와 협동을 하는 인간도 비둘기와의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비둘기도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훈련을 하던 두 대의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바람에 예산이 중단되어 끝나 버리고 말았다. 인간과 동물의 협동이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죤블로그(PigeonBlog)는 일종의 예술액티비즘 프로젝트인데, 2006년 예술가이자 연구자인 비트리즈 다 코스타(Beatriz da Costa)는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에 비둘기를 반려로 참여시켰다. 그것은 특정지역의 공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산업화에 의한 공기오염도는 공장지대와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주택단지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공기 오염과 같은 부담을 지는 것도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공기오염도 측정은 정부기관이 하는 일이지만 공식적인 오염도 측정 탐침이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탐침 가까이의 분진을 측정해서 외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오염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공기오염 장치를 장착한 귀소본능이 있는 비둘기들은 공식적인 측정장치가 없는 곳까지 날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오염수치를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다. 다 코스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식적인 오염장치를 비둘기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저항을 위한 행동이었다.

다 코스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 뿐 아니라 예술가, 엔지니어, 그리고 비둘기 애호가들에게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비둘기가 등에 맴 장치는 GPS와 센서 그리고 안테나가 달린 개방형 셀룰라폰 수준의 장치였고 이것을 개발하는데는 석달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장치를 비둘기에게 너무 무겁지 않도록 만드는 데는 1년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비둘기에 대한 지식도 익혀야 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신의 비둘기가 위협에 빠지거나 과중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비둘기 애호가들의 신뢰도 확보해야 했다. 여기에서 비둘기들은 단지 도구가 아니다.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것은 반려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다. 반려종이 된다는 의미는 함께-되기를 통해서 다 같이 유능해 지는 것이다.

이 반려종의 실프기는 뜻하지 않은 패턴들도 만들었다. 다 코스타는 비둘기와의 성과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안서를 함께 쓰자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PETA(People for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사람들로 부터 동물학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비난은 상당히 거셌고 다 코스타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녀를 인사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의가 쇄도했다. 사실이 프로젝트 초반에 비둘기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는데, 비둘기 애호가들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이 동물 착취에 대한 비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이 예술작업에 대해 PETA 사람들이 비난한 중요 근거가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였다. PETA는 자격의 합법성을 물으면서 피죤블로그의 폐쇄를 요구했던 것이다. 다 코스타는 이렇게 되묻는다. “정치적인(그리고 예술적인) 행동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동물의 작업이 과학이라는 우산아래서의 작업보다 덜 합법적인가?” 다 코스타의 작업은 환경정의의 실현에 사람과 비둘기와 전자기기라는 복수종의 협동적인 실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물권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동물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자가 없는 것처럼 동물권 역시 구체적인 반려종의 실프기 속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문자 동물권이 아니라 피죤블로그에서 나는 경주 비둘기의 노동권이 문제다. 백팩은 너무 무겁지 않은지, 노동을 수행하다가 맹금류한테 잡아 채일 위험에 노출 되지는 않은지 노동 시간은 적정한지가 문제다. 야생의 동물에게 인간의 일을 시킨다는 일반화된 비난은 온당하지 않다. 현실세계에 대처하게 되는 것은 그러

한 일반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에 착 달라붙어서 써름하는 것으로 부터다. 그런데 PETA가 다 코스타에게 자격의 합법성을 물었던 것은 일반화된 동물권이라는 맥락과 상당히 닿아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동물은 야생이라는 경계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야생의 순수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으로 예술가가 과학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경계를 침해하는 비합법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런 비합법적인 행위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은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귀결이 나온다. 이들에게는 린네의 분류표에 있는 비둘기는 있을지라도 오랜 세월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를 유능하게 길러온 현실세계의 경주 비둘기는 없다.

동물사육에 대한 민속지학을 연구하는 Vinciane Despret는 2003년에 프랑스의 예술가 Matali Crasset가 비둘기 애호가 연합과 코드리 공원의 의뢰를 받고 만든 비둘기집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러나 비둘기애호가 없으면, 사람들과 새들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으면, 선택, 도제살이, 전습기간이 없으면, 실천들의 전달이 없으면,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비둘기이지, 귀소본능이 있는 비둘기는 아닐 것이고, 숙련된 뱃사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기념 되는 것은 동물 혼자만은 아니고, 실천만도 아니고, 프로젝트의 기원 속으로 명백하게 기록되는 두 “함께-되기”의 활성화다. 달리 말하면, 나타나는 것은, 그것으로 비둘기들이 사람들을 재능 있는 비둘기 애호가들로 변화 시키고, 그것으로 애호가들이 이 비둘기들을 믿음직한 경주 비둘기로 변화시키는, 관계들이다. 이것이 이 작업이 어떻게 기념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것은 성취를 현재 속으로 연장시킨다는 의미에서 기억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업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일종의 반복이다. (Staying with the trouble)

Crasset의 비둘기 집은 비둘기와 인간이 서로를 유능하게 만들었던 함께-되기의 활동들을 기억하는 기념비다. 하지만 이 기억하기는 박제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되기를 활성화하는 기억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더 나은 함께-되기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억이다. 들뢰즈라면 이 기념비는 비둘기와 인간의 함께-되기에 대한 시간의 세 번째 종합, 차이나는 반복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러웨이는 데스프리의 글에 대해 이렇게 썼다.

Re-member(기억하다, 다시-멤버되기), com-memorate(기념하다, 함께-기억하다)는, 적극적으로, 반복하기, 되살아나기, 다시 취하기, 회복하기이다. 다 코스타와 데스프리는 반려종들이다. 이들은 복수종 생물과 SF 그리고 함께-되기의 싹트기 현실세계화(worliding)에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억한다. 그들은,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상호관계가 없다면 사라질 무언가를 육체적인 현재 속으로 유인하고 연장한다. (Staying with the trouble)

다른 맥락의 비둘기 집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의 배트맨 공원 안에 있다. 배트맨 공원은 예라(Yarra)강 연안에 있는데,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른제리(Wurundjeri)족의 영토였던 곳인데 유럽의 사업가 존 배트맨이 토착민들로부터 헐값으로 산 땅이다. 이 비둘기 집은 비둘기들이 도시의 빌딩이나 길바닥을 오물로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비둘기 집의 거주자들은 사육 비둘기가 아니라 “날개 달린 쥐”로 취급 받는 야생비둘기들이다. 이 비둘기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유럽인들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는데, 유럽인들이 예라 강의 습지와 시골마을을 화물과 철도수송을 위해 파괴해 버린 자리에서 번성했다. 이들은 토착종을 내쫓은 황소개구리나 배스같은 이른바 생태계교란종이다. 생태계 교란종은 종종 박멸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박멸은 복수종의 유한한 번성을 위한 곤란함과 함께하기와는 거리가 있다.

배트맨 공원의 비둘기 집은 일종의 부화제한 프로젝트다. 비둘기 집에는 200개의 둥지 상자가 있어서 비둘기들이 이곳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초대된다. 비둘기들이 알을 낳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공 알로 대체해서 비둘기들을 속인다. 이것은 인간과 비둘기의 갈등을 다루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게다가 비둘기 무리들의 배설물인 똥은 자급자족적인 환경보호농업인 퍼마컬처(permaculture)의 훌륭한 퇴비 원료가 되어 다시 푸드 시스템과 연인다. 물론 이 비둘기 집이 토착민과 유럽 인간의 불평등한 계약이나 정복, 그리고 습지의 파괴를 원상복구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복수종의 함께-살기를 위한 실패기에서 부분적 회복을 주는 의미 있는 패턴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 코스타가 코넬대학에서 수행한 피죠히치(PigeonWatch) 프로젝트도 반려종의 실패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든다. 이 프로젝트는 야생 비둘기들의 상이한 모집단에서 색깔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피죠히치 프로젝트는 조사원으로 도시의 학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도시의 소수자인 흑인 아이들과 도시의 비둘기들은 비슷한 처지로 멸시의 낙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통의 낙인을 가지고 있다고 비둘기와 아이들이 서로 보듬어 주던 사이는 아니었다. 도시의 아이들에게도 비둘기는 “날개 달린 쥐”였다. 그러나 관찰 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은 더 이상 비둘기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이전에는 어떻게 봐야할지,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몰랐던 이 존재자에 대해서 점점 민감한 관찰자와 옹호자로 변해갔다. 이렇게 된 것은 단지 아이들만의 노력은 아니고,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비둘기들이 아이들의 관심에 응답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복수종들이 테라폴리스에서 함께 잘 살고 죽기의 핵심에 곤란함과 함께하기가 있다. 해러웨이가 이야기 해준 것은 우리는 일상을 일반화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일상과 씨름하면서 현실세계에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의 세부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실제의 존재자들을 응답능력과 연결하는 것은 구체적인 일상의 세세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응답은 모두 같지 않다. 그리고 응답이 같지 않다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

〈부록〉 Staying with the trouble: Chap. 1, 반려종과 실뜨기하기

신뢰할 수 있는 뱃사공들

반려종들은 항상 서로를 감염시킨다. 비둘기들은 세계 여행자들이고, 그런 존재자들은 병원 매개 동물(vector, 病原)들이고, 좋은 나쁜든 간에, 더 많은 것을 옮긴다. 신체상의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무들은 전염성이 있거나, 혹은 있어야 한다. 함께 식사 중인 반려종. 단지 점점 더 많은 시작들이 있고 결말들은 없다면, 왜 나는 비둘기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상당히 일정한 한계가 있고, 강화되는 응답-능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세부 사항들이 실제 존재자들을 실제 응답-능력들에 연결한다. 스파이로서, 경주자로서, 메신저로서, 도시 이웃으로서, 무지개 빛깔의 성적 노출증 환자로서, 새의 부모로서, 사람들의 성 보조자(gender assistant)로서, 과학적 주체와 객체로서 예술-공학(art-engineering) 환경 리포터로서, 바다에서의 탐색과 구조 일꾼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자로서, 그림 스타일의 식별자로서, 토착종으로서, 애완동물로서, 그리고 더 많이, 현실세계적으로 비둘기들과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파트너들은 역사를 만든다. 어떤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엇을 기억하게 도울 때 마다, 혹은 나를 새로운 지식으로 데려갈 때 마다, 번창(flourishing)에 신경 쓰는 데 중요한 어떤 근육이 약간의 에어로빅 체조를 한다. 이런 체조는 복잡성 속에서 집합적인 사유와 운동을 향상시킨다. 내가 어떤 얽힌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별나게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직물에 꼭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몇 가닥의 실을 추가할 때 마다, 복잡한 현실세계화worlding의 트러블과 함께하기가, Terrapolis에서 땅 위에서 함께 잘 살고 죽기의 핵심이라는 점에 좀 더 일관성을 갖게 된다. 우리는 모두 끔찍한 역사들,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역사들에 직면하여 복수종생물의 번창을 위한 조건 마련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응답-가능하지(response-able) 않다. 차이들은 중요하다. - 생태학 속에서, 경제 속에서, 종속에서, 생명 속에서.